

기획조사 06-010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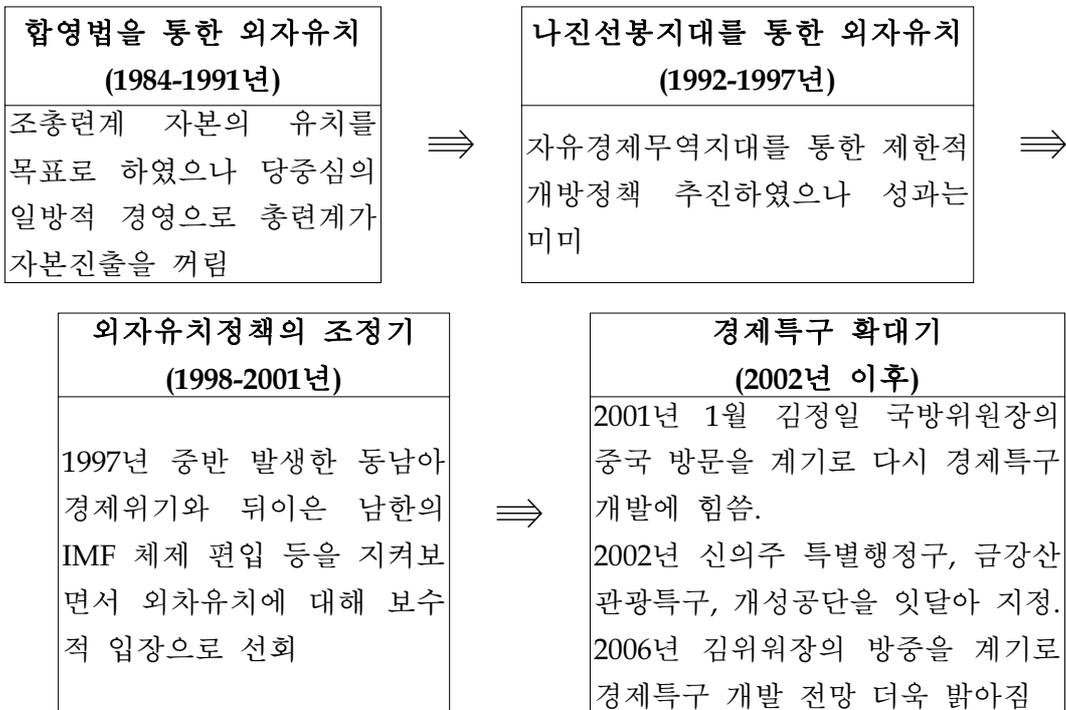
kotra

※ 요약

□ 문제제기

- 최근 북한은 무역·투자 유치 행사 개최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경제대표단을 파견, 무역·투자 증진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음.
-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중국의 대북투자만 증가시키고 있어 중국의 동북 4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몇 년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이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향후 동향을 전망하고자 함.

□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

- 2003년부터 북한의 외자유치액이 증가하고 있음

고려사항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무역관을 활용, 주재국 혹은 관할국 기업의 북한 진출 사례와 투자액을 조사하였으나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을 집계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어려움으로 정확한 집계 불가능

- 투자내역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가 상당수
- 투자액 또는 투자 건수가 작을 경우 발표하지 않거나 기타로 통합집계
- 투자내역을 외부에 공포할 경우 북한이 투자 허가를 취소한다하여 대북투자 외국 기업들은 투자 사실을 밝히기 꺼림

- 중국자본, 대북 투자 외국자본의 상당 부분을 차지.
 - 특히 2000년 이후, 최근 대북투자의 대부분은 중국 자본.
- 지하자원과 인프라 건설이 외자유치 중점 대상으로 떠오름.
 - 과거 외국기업의 대북투자는 섬유류와 어패류 위탁가공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무연탄, 동광, 금광 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외자유치 중점대상이 지하자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보임.
 - 중국은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제조업,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도 늘려가며, 투자영역을 다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타국가(특히 일본)들은 과거의 투자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의 외자유치 전망

-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 기업이 대북투자는 증가할 것
 - 외자유치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노력은 북핵문제 등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의 자본 유입을 가져올 것임. 이러한 구도가 지속될 경우 중국 자본이 북한 시장을 선점할 우려가 있음.

- 외국의 잠재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북한은 국가리스크인 만큼, 국제정치 환경이 전환되고,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북한의 국가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도 대북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외국 투자자들은 개성공단은 대북투자의 Role Model로 삼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개발의 성공이 북한의 외자유치 증가로 이어질 것.

□ 우리의 대응방안

- 개성공단의 개발 지속
 - 개성공단의 개발은 외국의 잠재투자자들이 북한 진출의 Role Model로 삼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의 성공으로 미국, 일본 등의 잠재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음.
 - 외국기업의 단독 개성공단 입주가 어려울 경우, 한국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할 수도 있음.
 - 그렇다면, 현재 중국 자본에 치우친 북한의 외자유치 구도는 극복될 수 있음.
- 개성공단 외의 다른 지역,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여야 함.
 - 현재 남측의 투자는 개성공단의 경공업 중심의 투자와 금강산 관광개발에 국한되어 있음.
 - 2005년까지 남북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자원은 흑연이 유일하였음.
 - 지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자본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밖의, 그리고 경공업 외의 분야에도 투자를 병행하여야 함.

목 차

I. 문제제기 / 1

II.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 3

III.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 / 11

1. 전반적 외자유치 실태 / 11

2. 주요국의 투자 동향과 특징 / 13

1) 중국 / 13

2) 일본 / 19

3) 러시아 / 22

4) 미국 / 26

5) 태국 / 27

IV. 북한의 외자유치 전망 / 39

V. 결론 / 42

I. 문제제기

□ 최근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

- 최근 북한은 무역·투자 유치 행사 개최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경제대표단을 파견, 무역·투자 증진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음.
 - 2005년 5월 평양에서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국제기구와 외국 무역전문가를 초빙, “무역토론회”를 개최
 - 2005년 5월 16일~19일 평양국제상품전 대규모 개최
 - 북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대만 등 14개국 90개사에서 출품한 철강, 전기전자제품, 기계, 석유화학제품, 의약품등을 전시
 - 2005년 1월 첸하오민(錢浩民) 홍콩 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이사장을 ‘투자유치대표(招商代表)’로 공식 임명
 - 첸 이사장은 홍콩과 평양에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북한 내각 직속의 조선 국제산업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설립
 - 2005년 9월 평양으로 재미동포 경제인을 초청, 북한과의 가능한 사업을 논의
 - 2005년 11월 총련계 상공연합회(상공련) 결성60돌을 맞아 상공련 대표들을 초청, 박봉주 내각 총리 면담 및 산업현장 시찰 기회 등을 제공
 - 2006년 1월 김정일 위원장, 중국을 방문, 경제학습뿐만 아니라 투자유치활동도 전개

□ 중국의 대북 투자 급증

- 2004년 중국의 대북투자 합의 금액은 1억 7,35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3년의 130만 달러에 비해 130배 폭증, 제1의 투자국으로 부상¹⁾
-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중국의 대북투자만 증가시키고 있어 중국의 동북 4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고찰해볼 문제

-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를 고찰
-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몇 년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향후 동향을 전망

□ 고려사항

-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무역관을 활용, 주재국 혹은 관할국 기업의 북한 진출 사례와 투자액을 조사하였으나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을 집계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어려움으로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
 - 투자내역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가 상당수
 - 투자액 또는 투자 건수가 작을 경우 발표하지 않거나 기타로 통합집계
 - 북한에서 투자내역을 외부에 공포할 경우 투자 허가를 취소한다하여 밝히기를 꺼림

1) 투자규모의 집계는 언론에서 보도된 계약 또는 합의서 체결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투자 실행과는 무관함(중국의 대북 투자 열기, 그 의미는? KOTRA 2005.2), 중국대외무역연감과 중국상무연감에 집계된 각년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3년 3,526천불, 2004년 8,999천불로 나타나는데, 본 통계는 투자 실행 금액 기준이라는 점에서 투자의 장기적 속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분석을 위해서는 언론보도 상에 나타난 투자 합의 금액을 집계한 KOTRA의 통계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II.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2)

□ 합영법을 통한 외자유치 (1984-1991년)

○ 외자유치 필요성에 눈을 떠

- 70년대 서방 차관 도입 정책이 실패로 끝나고 외채상환 불능 상태에 빠져 더 이상의 차관 도입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채무상환의 부담 없이 해외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눈을 돌리게 됨

- 중국 개혁개방정책에도 크게 자극받은 것으로 보임

- 중국은 1978년 8월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제정하고 深圳, 珠海 등지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외자유치에 상당한 실적을 거두어 왔음

○ 그 결과 1984년 9월 북한은 최초의 외국인투자법인 ‘합영법’을 제정·공포

- 1985년 들어 합영법의 후속조치로 합영법시행세칙, 외국인소득세법 및 시행세칙, 합영회사 소득세법 및 시행세칙 등을 제정하는 등 법규를 정비해 나감

○ 합영법은 서방국가와의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일본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즉 朝-朝 합영사업)를 위한 법적 장치였음.

- 84년 9월 합영법 발표 후 93년 말까지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자, 기계, 화학, 의류, 식품, 광산 등 분야에 걸쳐 147건에 달했는데 88%에 해당하는 130건이 조총련계 기업에 의한 투자로 알려짐

2) 북한의 투자관리제도의 변화와 전망, 김삼식, KOTRA, 2003 참조

- 한편, 1986년부터 91년까지 일본 대장성에 신고된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 투자는 32건 3,132만달러로서 투자 시기는 88년~89년에 집중되었고 업종별로는 섬유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합영법을 통한 외자유치, 한계를 드러냄

- 당 위원회가 경제지도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소위 '대안의 사업체계'로 인해 朝-朝 합영사업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경영이란 벽에 부딪침.
- 또한, 1989년의 중국 천안문 사태와 1990년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목도하면서 북한은 체제위기를 우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朝-朝 합영사업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해 조총련계 기업들의 북한경제 개발에 대한 공헌의지도 한계에 달하여 합영투자보다는 임가공 무역 쪽에 무게를 두게 됨.³⁾

□ 나진선봉지대를 통한 외자유치 (1992-1997년)

○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통한 제한적 개방정책 추진

- 90년대 초반, 구소련이 몰락하는 등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 본격화.
 - 구소련의 몰락에 따라 북한-러시아간 청산결제 시스템이 중지되고 교역이 국제가격에 기초한 경화 결제로 바뀌면서 91년 이후 양국간 무역이 급감하였고 에너지, 기술, 자본재의 도입이 막히면서 북한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
- 서방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 북한은 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함으로써 소위 '제한적 개방정책'이 시작됨.
 - 북한은 1992년부터 외국인투자관련법규의 母法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법(92. 10)을 비롯하여 합작법(92. 10), 외국인기업법(92. 10) 등

3) 이찬우,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현황', 일본 ERINA (KOTRA 북한뉴스레터 2000년 5월호 기고문 임)

을 제정하고 합영법을 개정(94. 1)하는 등 본격적인 법제도 정비에 들어감.

○ 나진선봉지대를 통한 외자유치에 힘을 기울임

-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개발은 93년부터 본격화.

· 먼저 자유경제무역지대법(93. 1)을 제정하고 그 하위규정으로 외국인 출입규정(93. 11), 자유무역항규정(94. 4),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94. 6), 세관규정(95. 6) 등을 잇달아 제정

· 93년 5월에는 나진선봉 최초의 개발계획안인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 총계획’과 부문별 외자유치계획을 발표했으며, 나진선봉을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으로” 개발할 것임을 천명

· 외자관련 법제도 정비와 병행하여 95년 이후에는 나진선봉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잇따라 여는 한편 투자 유치사절단을 파견하고 방북 유치하는 등 해외 홍보에도 주력⁴⁾

· 1996년 9월에는 나진선봉시에서 북한 최초의 국제투자설명회인 ‘나진·선봉국제투자포럼’이 개최

· 1997년 6월에는 나진선봉지대에서 경제활동 활성화와 외국투자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도입

- ① 북한원의 대폭 평가절하(1달러=2.21원을 1달러=200~220원)
- ② 기업의 독립채산제 실시(기업에 계획권.생산권.판매권.가격결정권 부여)
- ③ 가내 자영기업 설립 및 생활용품 생산, 판매 허용
- ④ 원정리 자유시장 개설 및 운영

4) ‘나진·선봉 경제특구 핸드북’, KOTRA, 1996. 11

○ 나진선봉자유경제지대의 성과는 미미

-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에도 불구하고 97년 말 현재 나진선봉지대에 유입된 외국인투자액은 실행 기준으로 5,792만 달러에 불과⁵⁾

□ 외자유치정책의 조정기 (1998-2001년)

○ 대외개방과 외자유치에 대해 보수적 입장으로 선회

- 1997년 중반 발생한 동남아 경제위기와 뒤이은 남한의 IMF 체제 편입 등이 배경으로 작용
- 1998년 들어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명칭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 변경하여 '자유'라는 용어가 빠짐
- 1999년 들어 북한은 외국인투자관련법규를 개정하여 통제를 강화⁶⁾

- ① 외국인투자의 대상지역을 기본적으로 나진선봉지대로 규정
- ② 외국인투자에 대한 중앙지도기관의 관리를 강화⁷⁾

○ 후퇴가 아닌 일보전진을 위한 모색기

- 북한의 '자유'라는 용어 삭제와 외자유치법규의 일부 내용 변경을 대외 개방 및 외자유치정책의 후퇴로 볼 수는 없음
- 오히려 이 시기는 북한이 대외개방정책을 재검토하고 일보 전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한 조정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5) '북한 나진선봉지대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KOTRA 북한뉴스레터 1998년 10월호. 한편 계약 베이스로는 투자 유치액이 7억 5,085만 달러로 나타났음. 참고로 북한은 93년 5월 나진선봉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제조업과 인프라 부문에 총 70억 달러의 유치 계획을 세운 바 있음.

6) 이찬우, 전계서

7) 개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인프라건설부문은 투자액 2,000만 북한원, 기타부문은 1,000만원까지 외 자기업에 대한 설립승인권은 지대당국이 가지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 설립 신청을 받아 심의 처리하게 되어 지대당국(나선시 인민위원회)은 현지에서 신청된 사안을 중앙에 제기하는 권한만을 갖게 됨

- 98년 9월 개정 헌법을 보더라도 개인소유의 범위 확대와 경제관리에
서 독립채산제 실시 등 진일보한 방침과 함께 대외경제와 관련해서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의 합영, 합작, 특수 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
려한다'고 하여 특구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개방정책이 원칙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
- 개정된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내용 중 일부는 외국자본의 실익을 보
장하는 내용도 포함됨⁸⁾

○ 나진선봉에서 신의주, 개성으로

- 나진선봉 개발에 한계를 인식

- 1998년 9월 나진선봉에서의 2차 투자설명회인 '나진선봉지대 투자상
담회' 이후 북한의 나진선봉 개발 열의는 식어 갔으며 북한은 나진선
봉 개발에 대한 한계를 인식한 것으로 보임.
- 실제로 99년 이후부터는 나진선봉에 대한 대외홍보 움직임도 별로
보이지 않았으며,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활
동도 크게 눈에 띄지 않음.

- 제2의 경제특구를 검토

- 금강산 관광 파트너인 현대아산에게 신의주에 공단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
- 그러나, 북한의 제안은 현대아산측의 거절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
갔으나, 2001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다시
부상⁹⁾

8)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부 실용적인 이익을 보장해 준 예로는 외국기업의 지점 또는 사무소가 이익이 있을 경우
외국투자기업으로 인정, 100% 단독투자기업의 업종추가변경 인정 및 초과근무나 임금기준에 대한 변경 허용
등을 들 수 있음.

9) 김 위원장은 당시 상하이를 방문해 '상하이 특구를 모델로 (북한에도) 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

- 귀국길에 신의주를 시찰하며 수행중이던 연형묵 국방위 위원, 김국태 당 비서, 장성택 등에게 신의주와 개성을 경제특구로 개발해 보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

□ 경제특구 확대기 (2002년 이후)

○ 개혁·개방 확대의 조짐을 보임

- 2001년 이후 북한은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소위 '新사고'와 '實利 보장'(수익성 제고)을 기본 원리로 강조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임.¹⁰⁾
- 지난 2~3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북한 지도부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향은 개혁·개방의 확대로 나타났음.

○ 잇따른 개혁·개방 조치

- 2002년 7월 북한은 가격·임금의 대폭 인상과 독립채산제 및 성과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전격 시행
- 또한, 대외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옴.
- 2002년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 2002년 11월 금강산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하고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발표, 금강산 지역을 사실상 관광특구로 명문화
- 2002년 11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개성지역을 '개성공업

해졌음

10) 북한이 말하는 신사고란 낡은 틀, 고정격식화된 재래식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실천한다는 것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신기술과 신공정 도입, 경제활동 참가자의 혁신적 자세 등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 한편, 북한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높은 수익성을 올리는 것이 필수과제이며 실리가 철저히 보장된 경제관리사업을 적극 강화할 것을 강조. 여기서 실리란 개별기관이나 기업소의 이익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 국가적 이익을 의미.

지구'로 지정한다는 정령을 발표한데 이어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

- 북한이 이처럼 경제특구를 지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① 특구를 외국 자본과 기술의 도입 창구로 만들어 외자 유치, 외화수입 증대, 고용 확대 및 국제경제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내경제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
 - ② 가깝게는 7월 단행한 경제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과 공급의 확대를 도모
 - ③ 91년 말 설치한 나진선봉 개발이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연다는 점
- 현재 4개의 경제특구 중 금강산관광특구와 개성공단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와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상태
- 2006년 1월 김위원장 방중, 경제특구 개발 전망 다시 밝혀¹¹⁾

- 이번 방중에서 중국이 광둥성 연안을 따라 3개의 경제특구를 만들었던 사례를 학습
- 주요 경제교류 대상지역과 경의선 철도의 남북연계 등 물류 인프라스트럭처를 감안할 때 북한의 서해안 지역을 따라 경제개방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신의주에서 멀지 않은 철산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음. 북한과 중국은 북한이 유일하게 대북투자자문권한을 인정한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北京華麗經濟文化交流有限公司)를 통해 철산 특구 설치 방안을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11) 북한의 개방전망과 개성공단, 이상민, KOTRA, 2006. 2

-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건설돼 남북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현재 접경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특구 전략은 개성-철산-신의주를 잇는 서해안 개방벨트로 확대될 가능성 높음.12)

12) 김정일 訪中은 개방신호탄?, 이상만, 매일경제 2006. 1. 17

Ⅲ.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

1. 전반적 외자유치 실태

□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

- 북한의 2004년 외자유치액은 4천만달러, 누적액은 12억 2천5백만 달러¹³⁾
- 2003년부터 북한의 외자유치액이 증가하고 있음
- 아래 통계의 정확성은 장담할 수 없으나, 북한의 외자유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외자유치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함.

북한의 외자유입(FDI Inflow)현황

(단위 : 미\$백만)

년도	2002	2003	2004
금액	-15	158	40

북한의 외자유입 누적액(FDI inward stock)

(단위 : 미\$백만)

년도	1990	2000	2004
금액	572	1046	1225

- 중국자본, 대북 투자 외국자본의 상당 부분을 차지
- 현재 북한의 외자 유치액 중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이는 북한의 전체 외자유치 규모를 정확히 파악

13)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UNCTAD, UNCTAD가 각국의 통계관련 기관의 자료를 입수하여 작성한 것으로 현재 북한의 외자유치에 대한 유일한 통계. 그러나 현재 북한 전문가 및 대북 사업 관계자들이 말하는 외자유치액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할 수 없기 때문.

-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은 2005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린 투자사업설명회에서 “2004년 말 현재 북한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300개이며, 그 중 40%인 120개가 중국 기업”이라고 밝혔음.
- 또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인사에 따르면, 2004년도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5,000만 불에 달하며, 외국의 대북 전체 투자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¹⁴⁾
- 특히 2000년 이후, 최근 대북투자의 대부분은 중국 자본인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의 외자 유치에 대한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때, 2000년 이후 중국을 제외한 여타국의 투자는 러시아의 2002년 정유관련 투자, 2005년 금융 관련 투자, 미국의 애니메이션 하청 생산 투자, 영국의 유정개발 투자, 담배 제조 투자, 스위스의 약품생산 투자뿐이었음.
- 이에 비해, 2000년 이후 언론에 나타난 중국의 대북투자 사례는 17건이었음.
- 중국은 동북 3성의 개발과 연계하여 북한의 자원과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보임
- 일본의 대북투자는 1990년대 말까지 활발했으나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경제제재를 취하면서 급감하고 있음. 기존의 대북투자들도 조총련계의 애국 운동의 일환이었음.
- 서방자본들은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으로서 북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홍콩의 신동아주식회사(주류 및 청량음료 생산, 공항건설)와 페레그린주식회사(은행업), 태국의 록슬리그룹(통신망 근대화), 영국의 로이알더치셀(원유가공), 미국의 스탠

14) KOTRA 베이징 무역관, UNCTA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북한의 전체 외자유치액이 4천만 달러이나, 중국의 한 인사에 따르면 5천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어, 북한의 외자유치액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음

트그룹(발전, 원유가공) 네덜란드의 ING베어링(은행업)등이 라선지대로 진출한 것을 들 수 있음

○ 지하자원과 인프라 건설이 외자유치 중점 대상으로 떠오름

- 과거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을 살펴보면, 석유류와 어패류 위탁가공이 주를 이루고, 호텔이나 생수나 담배 등의 소비재에 대한 외자유치가 활발했음
- 최근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무연탄, 동광, 금광 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외자유치 중점대상이 지하자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보임.
- 그리고 개발된 지하자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도 중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북한의 인프라 건설 관련 외자 유치가 지하자원에 대한 외자유치와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은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제조업,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도 늘려가며, 투자영역을 다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타국가(특히 일본)들은 과거의 투자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 주요국의 투자 동향과 특징

1) 중국¹⁵⁾

□ 투자 동향

○ 2002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투자

- 1984년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등장하기 시작한 중국의 대북

15) 북-중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이상민, KOTRA, 2005. 12 참조

투자는 1995년까지 불과 3건에 불과했음. 1999년 말까지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공식적으로 비준한 중국의 대북한 투자기업은 식당, 상점, 수산양식업 등 6개사이며, 투자 누계액도 188만 달러에 불과했음.

연도별 중국의 대북 투자현황¹⁶⁾

(단위: 개사, 미\$천, %)

연도	기업수	투자액	점유율
1990년 이전	2	790	4.2
1991	1	47.8	0.3
1992	0	0	0
1993	0	0	0
1994	1	270	1.5
1995	0	0	0
1996	0	0	0
1997	0	0	0
1998	1	160	0.9
1999	1	610	3.3
2000	0	0	0
2001	2	2,600	14.0
2002	4	1,503	8.1
2003	5	3,526	19.1
2004	8	8,998.8	48.6
합계	25	18,505.6	100

자료원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중국상무연감 각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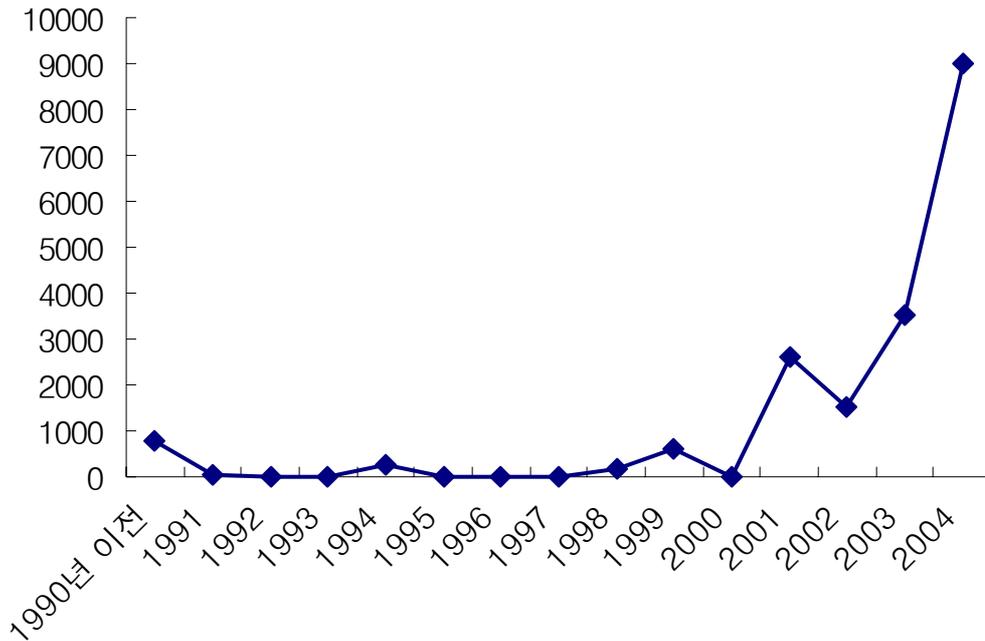
-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2년을 기점으로 투자금액, 투자추세 면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북한의 경제관리 및 대외개방에 대한 변화가 본격화된 2002년 7·1 조치 이전에 실현된 중국의 대북 투자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2001년을 제외하고는 투자금액도 미미했음. 대표적인 사례로 연변현통집단의 라진·청진항 컨테이너 설비 및 항만 확장공사 공사를 들 수 있으며, 이밖에는 대부분 식당 등에 소규모 투자가 전부였음. 그러나 2002년 7·1조치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대북 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4개사 1,503천불,

16) 본 통계는 중국 상무부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신고를 거치지 않은 투자 금액까지 합하면 투자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인사에 따르면, 2004년도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5,000만불에 달하며, 북한 전체 투자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 (KOTRA 베이징 무역관) 또한 본 통계는 실행액 기준인바, 현재 중국의 대북 투자 급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투자 협정액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2003년 5개사 3,526천불, 2004년 8개사 8,998천불을 기록했으며, 특히 2004년 투자액이 전체 누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6%에 달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중국의 연도별 대북 투자 실행액

(단위 : 미\$천)



○ 지난해부터 중국자본의 북한 진출 본격화

- 중국 정부의 대북 투자 육성

- 원자바오 총리는 2004년 4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게 “중국정부는 중국 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한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천명
- 2004년 2월 중국은 대북 투자 자문 회사인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
유한공사¹⁷⁾”를 설립하여 정부차원에서 대북진출을 총괄.
- 2004년 중국 흑룡강성, 사천성, 복건성 등 여러 성에서 ‘대북투자

17) 민관영을 통틀어 북한이 유일하게 자문권한을 인정한 회사임. 형식상 민간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정부를 대행. ‘경제혈맹’, 중국자본, 북한 점령 가속화, 남성욱, 신동아 2005. 12

설명회'가 개최됨. 2004년 11월 요녕성 심양시 기업가 협회에서 주최한 '대북투자설명회'에는 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룸.

- 200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방북한 중국 국무원 우이 부총리는 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발 등 3대 중공업 분야에서 기존의 북한 중공업 단지와 함경북도 일원에 개발 원조를 해주기로 합의.

- 2005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일 위원장과 중국이 무상 지원으로 건설한 대안친선유리공장을 참관한 뒤 김영남 위원장과 회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후주석은 중국과 북한의 경제무역 관계 발전이 매우 빠르고 잠재력도 크다며 상호 이익 및 공동 발전 원칙에 입각해 양측 기업들이 여러 형식의 합작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천명.

- 북한도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유치에 적극적

- 2005년 2월 북경에서 '조선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이 참석하였는데, 300여 중국기업가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집행국 김정빈 국장이 조선의 투자환경, 절차 및 특혜정책과 20개의 대외유치중점 프로젝트를 발표.

- 2005년 1월 북한은 첸하오민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이사장을 북한 정부의 외자 유치 대표로 공식 임명.

- 2005년 3월 북한 박봉주 총리는 중국 방문 기간 중에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환경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 투자자산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틀을 확보, 광산과 유통, 제조업 등 각종 대북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대북 투자 증가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음.

□ 투자 특징

○ 대북투자, 동북3성과 남방계 기업들이 주도

- 현재 북한에 투자한 중국기업 중 항주의 와하하집단(杭州娃哈哈集團), 하남일타집단(河南一拖集團), 산둥성 초금집단(招金集團), 길림성 방직수출입공사(吉林省紡織輸出入公社) 등 비교적 큰 기업들이 동북 3성과 남방에 집중되어 있음.
- 동북3성 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남방기업들의 북한진출은 중국기업들의 글로벌화로 해석될 수 있음.¹⁸⁾

○ 자원 개발 투자에 집중, 타 영역으로 투자 확대 중

- 투자분야 중 지하자원 개발이 가장 활발
- 2005년 10월 길림성의 통화(通化)철강그룹, 옌벤토텐츠(延邊天池)철강그룹, 중강(中鋼)그룹 3개 기업이 향후 50년간의 무산광산¹⁹⁾ 개발권을 따내는 계약을 북측과 체결. 총 투자 금액 70억 위안(약 9억 US\$) 가운데 50억 위안은 광산개발에 투자하고 20억 위안은 길림성 통화에서 무산을 잇는 철도, 도로 등 수송시설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며, 매년 1000만 톤의 철광석을 채굴할 것으로 알려짐.²⁰⁾
- 평안북도에 위치한 용등탄광²¹⁾과 중국 비철금속 관련 대기업인 오광집단(五礦集團)이 석탄시굴 관련 합자회사를 설립기로 합의. 2005년 9월 우이(吳儀) 중국 부총리의 북한 방문 시 동행한 중국 오광집단(五礦集團) 총재가 립경만 북한 무역상과 만나 합자기업 설립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 이는 북한이 처음으로 자국 탄광을 외국자본에 개방한 것임.

18)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임금숙,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19) 무산광산은 아시아에서도 큰 철광생산기지로서 12억 톤 이상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북한에서 가장 큰 철광산임.

20) 동아경무신문(东亚经贸新闻) (2005. 11. 1), 홍콩 대공보(2005. 11. 2)

21) 용등탄광은 한때 연간 생산량이 300만톤에 달한 북한 최대규모의 무연탄 탄광으로, 현재는 연간 10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량강도 혜산동광 개발, 북한 산농산 금광개발 사업 등이 진행 중
-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각종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리적 이점이 있고, 품질이 좋은 북한 지하자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어업자원과 목재에도 투자

- 북한 상명무역총회사와 중국 베이징종합화학무역공사(北京綜合化學貿易公社)는 원산 앞바다를 중국어선에 5년간 개방하고, 입어료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받는 공동협력계약을 체결.²²⁾

- 투자 분야 확대 중

- 북한 산업 인프라 건설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라진항의 50년간 독점 사용 사업임.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중국의 훈춘시 동린 무역공사 및 훈춘국경경제협력지구보세공사와 50대 50으로 자본금을 출자해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 중국 측은 라진항을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신 북한 내 도로 건설, 관광 시설 및 공업단지 조성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²³⁾
- 이 외에도 컴퓨터, 자전거, 트랙터, 유리 등의 제조업 분야에도 투자 중이며, 중위 그룹의 평양 제1백화점 투자와 같이 서비스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음.

○ 보상무역과 합작투자 형태 위주

- 중국기업의 대부분의 대북 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기보다는 주로 보상무역의 형태를 띠고

22) 연합뉴스, 2004. 9. 7

23) 연합뉴스, 2004. 10. 12

있음. 앞서 설명한 무산광산 철광석 채굴권 취득도 광산개발, 도로건설 등의 보상 무역형태를 취하고 있음.

- 중국 측과 북한 측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도 많이 눈에 띄는데, 최근 중국의 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와 조선대외경제합작촉진위원회가 설립한 평진 자전거 합영공장, 산둥성 초금집단과 양강도 '혜산청년동광'간의 합작 등이 대표적인 예
- 보상무역형태는 투자한 설비만큼 생산제품으로 보상받기에 투자 리스크가 낮고 산출 주기가 짧으며 상호계산이 간편하기 때문에 서로 신용만 잘 지킨다면 현재 중국의 대북투자에서 알맞은 형태로 보임.²⁴⁾

2) 일본

□ 투자동향

○ “애국운동”으로 추진된 대북 투자

- 과거 재일교포 1세의 경우 비즈니스 관점에서보다는 자기만족(국가에 대한 애국심, 산업 부흥에 대한 신념, 민족의식의 고양)을 위한 ‘조국부흥사업에 참가’ 취지에서 북한에 투자해 왔음.
- 1984년 제정된 ‘합弁法(합작법)’은 제 5조 ‘재일조선상공인 및 해외동포도 법에 기초해 북한 회사 및 총회사와 합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이후 재일교포 1세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다.
- 특히 1986년 2월, 김일성이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힘이 있는 자는 힘을, 돈이 있는 자는 돈을,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조국인민을 위해 합작을 전개해 줄 것”이라는 요구하면서 이후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1986년 11월부터는 북한대외경제위원회 합작지도국과 조총련중앙지도부의 ‘합작사업연구회’에서 합작사업을 동시에 추진하

24)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임금숙,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였음

연도별 일본의 대북투자동향

(단위 : 백만\$)

년도 (4.1~익년 3.30)	투자금액
1990년 이전	30
1991	2
1992	4
1993	0
1994	0
1995	0
1996	1
1997	0
1998	0
1999	0
2000	0
2001	0
2002	0
2003	0
2004	0
누계	37

출처 : 재무성 '금융재정통계월보 대내외 직접투자상황'

*주 : 재무성의 '대내외 직접투자상황' 통계는 1억엔 이하의 대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음(재일북한 상공인 투자는 1억엔 미만이 비교적 많음). 달러표기는 재무성 통계를 기준으로 JETRO에서 작성한 '일본의 지역별 대외직접투자'를 참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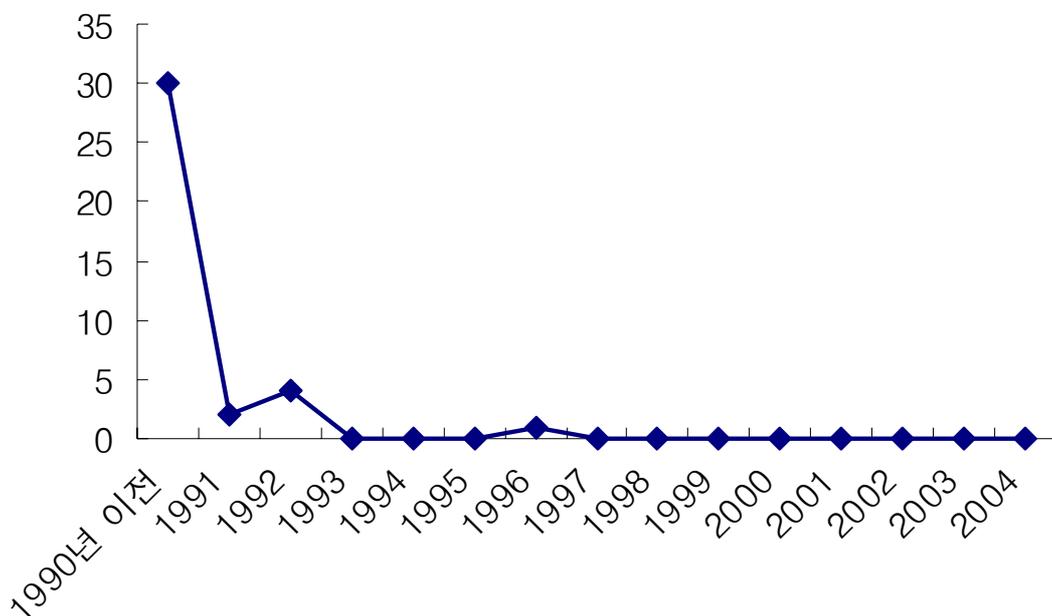
○ 1990년대부터 일본의 대북투자 급감

- 하지만 재일교포 2세, 3세로 가면서 명예보다는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대북투자를 고려하고 있음. 현재 이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판단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대북투자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

- 1990년 이후 합작투자기업의 가동률은 저하되고 신규투자는 격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전력사정 악화 및 북-일간 갈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특히 계약불이행, 임의적 위탁가공비 인상, 사정발급문제 등 상이한 경제관리시스템 및 세계시장무역시스템과의 부조화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일본의 대북 투자 실행액

(단위 : 미\$백만)



- 2001년 8월 조선총연합회 합작추진위원회(일본 소재)는 명칭을 '재일조선합작경제교류협회'로 바꾸고 일본기업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었지만 채무 불이행 문제 및 상관습의 차이에 기인한 신용 문제 등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투자특징²⁵⁾

○ 조총련계가 대부분

- '합弁法(합작법)'이 1984년에 제정된 이후 외국인 투자 실적은 재일 북한인에 의한 투자가 대부분으로 순수 일본기업은 1991년 북한의

25) 環일본해경제연구소, 일본재단연구소, 동아시아무역연구회 의견 종합, KOTRA 도쿄 무역관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설립 이후에도 대북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일본기업들은 납치 및 핵과 같은 정치문제가 부상함에 따라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북한 정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일본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고 사업을 성공시켜서 그 이윤으로 채무를 회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은 채무 변제(북한의 채무 불이행 문제, 이자를 포함해 약 1,000억엔 상당)가 해결되지 않는 한 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입장임.

○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

- 모란봉 주식회사의 모단봉 합작회사 설립이 대표적인 대북 투자로 총연합 합작사업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상공인에 의한 투자 약 120건 중 대부분이 소규모이며 현재 가동중인 기업은 수십개사 정도에 불과함.

○ 경공업과 서비스 분야에 주로 투자

- 투자분야는 섬유, 식료품, 피아노, 합성수지, 희토류,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하지만 섬유 등 경공업 분야와 식당과 같은 서비스 분야가 중심을 이룸.

- 일부 설비·원료·연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대북 투자의 전형적인 형태임.

3) 러시아

□ 투자 동향

○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지원에서 투자로

- 러-북 양국간의 경제관계는 소비에트 시대 때부터 긴밀하였는데 사회주의 경제권의 일원으로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왔음. 특히 프로젝트성 사업에 있어서 소련은 북한에 국채(State Loans)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경제 지원을 했음.
-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양국간의 경제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
 - 소련은 의류제조, 기계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공동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음.
 - 실례로, 80년대 말에 소련과 북한은 원산 인근 지역에 의류 공장을 짓고, 이 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를 소련으로 수출하였음. 원면은 소련에서 제공하고, 의류생산은 북한에서 하는 합작사업이었음.
 - 이외에도 “고리끼(現 니즈니-노브고로드)”에 기반을 둔 기계제조 회사가 희천의 북한공장과 합작회사를 차리는 등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합작투자가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

○ 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대북투자 중단

- 1991년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활동에서 국채 발행을 중단, 미화 달러(즉, 현찰)만을 유일한 지불수단으로 인정.
 - 이것은 경제부문에서 러시아(舊소련)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patron-client 시스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일반 기업들이 북한과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러시아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보조금 지원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
- 이에 따라, 1992년 이후에는 러시아 기업들의 대북 투자는 사실상 중단.

○ 199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의 대북 투자 활성화

- 1996년에 러시아-북한간의 상호투자보호협정(Mutual Investment Protection Cooperation)이 체결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러시아 기업의 시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 특히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러시아 기업들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 북한의 값싼 노동력 등의 경제적 요소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북 투자를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
- 러시아 기업의 대북 투자의 붐몰을 터트린 계기는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訪北
 - 러시아 최고위층의 공식 방문은 양국의 우호 및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행사였으며, 러시아 비즈니스맨들에게는 북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감소되는 고무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음.
 - 러-북 양국 관계의 해빙기는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답방과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Konstantin Pulikovsky) '前 극동지역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특사'의 訪北으로 이어졌음.
 -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 러-북 양국간의 경제교류에 있어 밀월효과(honey-moon effect)가 있었고, 몇몇 러시아 기업들은 북한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음. 그러나 러시아의 대북 투자 규모 등 상세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투자 특징

- 러-북 양국의 경제관계에서 러시아 기업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 그러나 잠재성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TKR-TSR’ 연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 러시아 기업들은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비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북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러시아 기업들은 북한 내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실제로 수산물 양식회사인 “Nereida”는 가리비의 주요 판매시장으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중국 또한 주요 타겟 시장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러시아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도 북한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으로 재수출하기 용이하기 때문. 특히 석유 및 석유 관련 제품 생산 기업의 경우에는 “용성”이라는 합작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시아내 인근 국가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투자의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한정된 투자 대상 분야

- 러시아 기업들이 지금까지 투자 진출했던 분야는 주로 소비에트 시기에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했던 산업분야 내지는 90년대 중반에 러시아 기업들이 진출을 시도했던 분야에 한정
- 수산물 가공·정제·철강 분야 등이 대표적인 예
- 러시아 기업들은 과거의 경험치, 기존의 인프라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진출을 꾀하는 듯 함

○ 나진-선봉 지대에 집중된 투자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북한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
- 우선 홍콩계 은행 지점이 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상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동 지역내에 설립되어 있는 “용성”이라는 합작회사도 투자유인 요소
- 이 회사는 석유 및 석유 관련 제품 수출입 거래에 있어 북한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회사임. 따라서 러시아의 석유 관련 회사들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의 진출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인근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의 간접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극동지역 출신 투자가가 대부분

-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Konstantin Pulikovsky) ‘前 극동지역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특사’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
- 추측컨대, 콘스탄틴은 푸틴 대통령로부터 대북 투자 사업에 있어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것이고, 이러한 배경을 업고 콘스탄틴은 대북 투자 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미국

□ 투자동향

○ 공식적으로는 실질적인 대북투자실적이 없음.²⁶⁾

- 미국의 Trading with the Enemy Act 규정상 제약에 따라 미국 내 기업들의 대북 교역 및 투자진출은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 미 국무부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보고서는 AMCHAM에서 대북 투자사절단을 파견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북한정부로부터 방문비자를 받지 못하였으며 설사 방문한다 하더라도 미국기업들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 원자재 부족 및 광범위하게 퍼진 부패, 법

26) 관련 자료원

- 미국 상무부 경제통계국 제공 통계 (www.bea.doc.gov)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www.unctad.org)
- UN 보고서 (www.un.org/pubs/chronicle)
- OECD,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www.oecd.org)
- UNCTAD 통계 (stats.unctad.org/fdi)

적 인프라 부족, 급작스러운 경제정책의 변동과 과거 북한 기업이 해외기업이 제공한 서비스와 물품에 대해 대금지급을 하지않은 사례 등으로 인해 대북 투자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음

○ 비공식적 투자실적은 있는 것으로 추측

- 상기와 같이 미국내 기업들의 공식적 투자실적은 전무하나 일부 한국계 교민 기업인 및 현지 컴퓨터 활용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사, 다국적 기업 등이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대북 투자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사회에서 알려지고 있음
- LA 한인상공회의소 등 한인교포 기업인 단체 및 교민 종교단체에서도 다수의 교민 기업인들이 대북 투자진출을 검토하고 있거나 일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북한측에서 동 교민기업인들의 투자내역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투자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에 따라 상세한 실적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음

□ 투자 특징

○ 낮은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활용

- 여타 개도국 대비 인건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컴퓨터 관련 산업 등 일부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과 품질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경제성 측면에서 투자 검토

○ 교민 기업인 및 종교단체에서의 관광 또는 원조적 차원의 투자가 많음

5) 태국

□ 투자 동향

○ 무역은 활발하나, 투자는 신중

- 태국은 2004년 기준 북한의 제2의 무역국

- 그러나, 직접투자는 거의 없음

· 태국 재무성 북한 담당자 Ms.Suchada는 태국-북한 간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 민간부문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으나, 현재로서는 대북 투자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함.

· 한편, 태국 투자청의 Dr.Bonggot는 대북한 직접투자계획은 없다고 함.

○ 2005년 12월 현재, 북한에 투자한 태국기업은 Loxley Pacific사가 유일

- 태국 Loxley Pacific사는 북한의 Korea Post & Telecommunication사와 Joint Venture형태로 북한 경제 특구인 나진·성봉 지역에 통합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에 투자하였고, 1995년부터 2021년까지 27년간의 영업권 확보

- Loxley Pacific사의 모회사인 Loxley Public사 Mr.Sahayos는 인터뷰에서, 현재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서, 장래 수익성이 높은 이동통신 산업에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진출함으로써 시장 선점 및 지배력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투자한다고 밝힘.

□ 투자 특징

○ 북한의 투자요청이 있는 경우, 태국 투자청에서 투자희망 기업을 발굴 후 북한에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대북 투자 관련 규제 및 특혜는 없음.

북한의 외자유치 주요 사례

연번	투자분야	투자규모	협정(보도)시기	비고
중 국 ²⁷⁾				
1	발전소	2억불	2000년 4월 香港商報	중국의 광동화하환보생태과학유한공사(廣東華夏環保生態科學有限公司), 북한의 조선경제개발총공사가 '환경보호 및 생태자원 이용 협약서'를 체결, 협약에 따라 나선에 발전소 건설 추진.
2	페인트	미상	2000년 7월 KOTRA	천진등탑도료고빈유한공사(天津燈塔塗料股份有限公司), 북한의 평양지성명심합자회사(平壤至誠明心合作會社)가 평양에 합작 페인트공장을 설립하기로 합작조인식 개최.
3	광천수 생산	494만불	2000년 12월 KOTRA	중국측(우림경제무역유한공사), 북한측(조선 두만강무역회사)이 각각 49:51의 비율로 북중 합영회사인 "칠보산 합영회사" 설립.
4	담배	150만불	2002년 3월 금수강산	중국 길림성 연길담배공장 단독으로 라선신흥담배회사 설립.
5	컴퓨터	130만불	2002년 6월 신화일보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南京熊貓電子集團有限公司),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가 합자, 아침-팬더(晨曦熊貓計算機有限公司) 컴퓨터 합영회사 설립.
6	슬레이트	미상	2003년 11월 연합뉴스	길림성성방직수출입공사 및 창춘영초과학주식유한회사 공동 투자. 규모 및 위치 미상.
7	유리공장	2,400만불	2004년 3월 연합뉴스	2004년 2차 6자회담 관련 중국의 대북 원조 성격, 평남 대안군에 중국의 요화유리집단공사(耀華玻璃集團公司)가 건설.

8	트랙터	미상	2004년 7월 koreancc.com	중국 하남일타집단(河南一拖集團), 조선금성트랙터 공장간 시행계약 체결.
9	백화점운영	5,000만 위안 (약600만불)	2004년 8월 KOTRA 보도	선양 중쉬그룹(Zhongxu jituan, 中 旭集團) 및 평양 제1백화점. 수입관세 5%, 소득세 5%만 부과하 는 특혜.
10	황금채굴 및 제련	미상	2004년 9월 제남일보	초원산동국대황금고빈유한공사(招 遠山東國大黃金股份有限公司), 조선 대경추 MOU 체결, 북한의 산농산 금광개발 관련 합작 투자 논의.
11	담배,의류,무역	2,000만불	2004년 11월 中新吉林新聞網	지린성 상무청 관계자가 성내 대북 투자기업 9개사가 총 2천만불을 북 한에 투자했다고 언급.
12	운송	7억위엔 (8500만불)	2004년 11월 연합뉴스	온주낙청성금쾌속기차복무유한공사 (溫州樂清盛金快速汽車服務有限公 司), 북한의 조선올림운수합영회사 합작.
13	동광개발	2.2억위엔 (2680만불)	2005년 1월 연합뉴스	중국 길림성 장백현(長白縣), 산동 성 초금집단(招金集團)이 공동으로 장백초금광업주식유한회사(長白招 金鑛業株式有限會社)설립, 량강도 혜산 동광 개발.
14	소비재	미상	2005년 3월 연합뉴스	중국의 지린식용유수출입회사, 북 한의 평양담배종이제조공장이 합작 공장을 설립, 여성용 생리대(브랜드 명: 검은꼬리 고지새) 생산.
15	항구개발	800억원	2005년 9월 경제참고보, 국제선구도보 등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중국의 훈춘 시 동린무역공사 및 훈춘국경경제 협력지구보세공사와 50대 50으로 자본금을 출자해 라선국제물류합영 공사를 설립, 중국 측은 라진항을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 득하는 대신 북한 내 도로 건설, 관광 시설 및 공업단지 조성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

16	자전거	65만불	2005년 10월 조업시작	중국 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와 조선대외경제합작촉진위원회가 51:49 투자, 평진자전거합영공장 설립, 양측은 20년간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관리할 것을 약정.
17	탄광개발	미상	2005년 10월 길림신문	중국 오광집단(五鑛集團)은 북한 럽경만 무역상과 합자기업 설립 협약서에 서명하고 평북 용등탄광을 개발하기로 합의.

일 본²⁸⁾

1	피복제조	1300만 달러 (복수회에 걸쳐 투자, 설비 등 현물출자 포함)	1987년	평양에 은하무역총회사(北)와 모란봉주식회사(日)가 '모단봉합작회사'를 설립. 동대원 공장은 87년, 대동강 공장은 88년에 각각 가동. 종업원 약 1,000명. 연간 신사복 7만벌, 블라우스 6만벌, 블루종 15만벌 제조. 재일 투자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
2	피복제조	미상	1987년	평양에 조선악원무역총상사와 세이와(星和)상사가 '악원·성화피복합작회사'를 설립. 부인복, 블라우스, 코트, T셔츠 등을 제조판매. 생산능력 연간 20만벌.
3	섬유	미상	1988년	자강도 희천시에 자강도 인프라 무역회사와 주식회사 아스코가 '청천강합작회사'를 설립. 공장건평면적 16,100m ² , 종업원 495명. 연간 350톤의 생사 생산.
4	섬유	미상	1988년	평양에 북한미담회사와 교토 상공주식회사가 '평양명주 합작회사' 설립 실크 직물, 부인의류제품 제조 및 가공.

5	식료	미상	1988년	함경북도에 함경북도협동수산물위원회와 주식회사 아이유가 '조선성계 생산합작회사'를 설립.
6	식료	800만 달러 (복수회에 걸쳐 투자)	1989년	평안남도 성천군에 성천군 농촌경영위원회와 에이교(永興)상사가 '이영삼 평양 감률 연구소'를 설립 감률(밤) 제조공장(종업원 250명)에서 연간 350만톤 생산.
7	식료·의료(衣料)	미상	1989년	함경남도 정평군에 광포 집오리 사육공장과 도교 합동상사가 '광포합작회사'를 설립.
8	금융업	미상	1989년	평양에 합작기업총국과 조선총련·상공연합회가 '조선합작은행'을 설립 해외 20개 은행과 거래. 북한 국내에 6개 지점 설치.
9	포장재료	300만 달러 (복수회에 걸쳐 투자)	1989년	평양에 평양 식품연합기업소와 니시도쿄(西東京)상사가 '평양 곤포합작회사'를 설립. 종업원 35명. 가공능력 연간 300만 상자(골판지).
10	악기제조	미상	1989년	평양에 평양악기총회사와 유한회사 파코가 '평양피아노 합작회사'를 설립. 피아노 제조.
11	경공업	40만 달러	1990년	함경남도 함경시에 함경목재품공장과 유니코퍼레이션과이 '밀림·유니합작회사'를 설립. 공장부지면적 4천평, 연간 약 1억개의 나무젓가락 제조.
12	건축자재	미상	1989년	평양에 농산물수출입총회사와 아사히(朝日)산업주식회사가 '만풍합작회사'를 설립. 91년 생산과 수출판매로 분할한 합작방식으로 변경.

13	골프장·식당	미상	1990년	평양에 조선대성무역상사와 칠성무역상사가 '칠성합작회사' 설립. 골프 연습장, 식당, 사우나 경영.
14	화학품	미상	1991년	함경남도 함경시에 조선용약산무역총회사와 국제트렌딩이 '국제화학합작회사'를 설립. 공장건평 3만m ² , 종업원 약 500명 희토류 제품 제조.
15	건축자재	82만 달러	1991년	평양에 평양시 금속건재공장과 스타 광업주식회사가 '금성합작회사'를 설립. 공장건평 800m ² , 종업원 35명. 수도꼭지, 싱크대 등 제조. 연간 50만개 생산.
16	의료(衣料)	미상	1992년	평양에 평양시 피복총국과 류우교(柳京)무역이 '평양피복합작회사'를 설립. 남성기성복, 블루종, 코트 등 제조 판매.
17	의료(衣料)	미상	1992년	평양의 조선광명무역연합회와 주식회사 자가 상회가 '개선피복합작회사' 설립. 종업원 130명, 재봉틀 120대로 24시간 공장 풀가동. 아동복 생산판매.
18	출판	미상	1992년	평양에 민주조선과 기무라총업 주식회사가 '금만합작회사'를 설립. 각종 인쇄물 작성 및 출판.
19	전기부품	미상	1993년	평양에 조선은덕무역총회사와 다이에이기계무역회사가 '금강전동기합작회사'를 설립. 농업용 소형모터 제조판매. 연생산량 1만대.
20	합성수지	미상	1994년	평양에 만경대 영예군인공장과 에리카세이 주식회사가 '만경대수지

				합작회사'를 설립. 공장면적 5천m ² 의 자동화 공장으로 재생수지원료 등 수십여종의 합성수지제품 제조.
21	음료수	800만 달러 (복수회에 걸쳐 투자)	1995년	평양에 조선국제합작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코가 '고려신덕미네랄워터합작회사'를 설립. 연생산량 15만 톤의 미네랄워터를 제조해 중국과 동남아 지역 위주로 수출.
22	호텔	350만 달러	1997년	나선시에 조선국가체육위원회 산하 건설회사와 효고현 상공인 모임이 '비파관광호텔'을 설립. 객실 110실, 200명 수용 가능.

홍 콩

1	호텔	300억원	미상	홍콩 Emperor 그룹의 호텔 카지노(영향오락주점) 투자. 2004년 12월 중국 정부의 도박금지령 속에 영향오락주점은 불법도박의 온상으로 중국 언론에 집중 소개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중국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영향오락주점은 사실상 영업 중단.
---	----	-------	----	--

러시아

1	기계	미상	정부간 협정 체결 (1987년)	"고르끼 절삭기계 제작회사(Gorky Milling Machine Tool Maker)"와 "희천 기계 제작회사(Huichon Machine Tool Maker)" cooperation 설립.
2	의류	미상	정부간 1차 협정 체결 (1988년) 2차 협정 체결 (1992년)	원산에 joint production 설립. 러시아측 : 원면, 악세사리, 디자인 제공. 북한측 : 제품 생산.

				당초 1992~2000년까지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음.
3	어업 및 수산물 가공	미상	계약 체결 (1997년)	Dalmoreproduct(블라디보스톡)과 북한의 조선수산(Chosun Soosan), 실포에 통조림 생산 공장 joint production 계약 체결. · 러시아측 : 냉동 생선 제공 · 북한측 : 제품 생산 2001년도에 러시아는 약 3780톤의 생선 제공, 오징어·꽂치 등 공동 조업.
4	수산물 양식	US\$ 37만	합작법인 설립 계약 체결 (2001년)	“Nereida”(러)과 “대흥-아쿠아 (Daehung- Acqua)”(북), 나진-선봉 지역에 가리비 양식장 설립. 2005년도에 100톤 가량의 가리비 한국 수출 예상.
5	정유	미상	양해각서 서명 (2002년 2월)	“Dalinkom-Petroleum”(러)와 “화학”(북)이 북한의 “Sunny”라는 정제소에서 연간 200만 톤의 석유를 정제하기로 계약 체결. 2004년도에 나진 - 선봉 지역에 joint-venture(합작법인) “용성” 설립.
6	금융	미상	언론 보도시기 (2005년 8월)	평양에 지사를 두고 있는 “Trest”(러) 석유/광물 채취를 다루는 합작법인 설립. 지난 8월, 합작은행 설립.
태 국				
1	정보통신	2800만 달러	1995년	태국 이동통신 설비 장치 및 서비스 제공 민간기업인 Loxley Pacific 사(70%지분)와 북한Korea Post & Telecommunication사(30%지분)와 Joint Venture 형태로 설립

미 국				
1	애니메이션 하청생산	미상	CNN, '03.12.25 일자 보도내용 등	미국 KOAA사(대표 넬슨신), Disney사를 포함하여 프랑스, 일본, 이태리, 미국, 한국 기업 등이 북한 SEK ²⁹) Studio (조선4.26 아동영화촬영 영소)에 애니메이션 필름을 하청생 산 하고 있음. Lion King 및 Pocahontas와 같은 유명 작품도 SEK에서 하청 생산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음.
2	건축	미상	미상	LA소재 J모 건축사가 북한내 건축 사업 추진중. 투자규모 및 내용 미상.
프랑스				
1	화학 및 광업	12백만 유로	미상	주로 화학 및 광산 관련 사업에 투 자가 이루어졌으나 자세한 통계나 투자업체명은 외부에는 비공개로 하고 있음.
2	애니메이션 하청생산	미상	미상	1985년부터 프랑스 애니메이션제작 업체는 SEK Studio (조선4.26 아동 영화촬영소)에 애니메이션 제작 계 약을 수차례 맺었음. Becassine (주: 1950년대 프랑스에 서 유행한 유명 만화 캐릭터)을 비 롯, 유명 애니메이션 여러 편을 제 작하였음.
영 국				
1	담배제조	7.1백만불 이상	'05.10.17일자 영국 Guardian Daily 보도	2001년 북한국영기업 석용 무역과 합작, 710만불을 투자하여 지난 4년 가 북한에 비밀리에 담배제조공장 을 운영하고 있음. 200명의 근로자를 채용, 연 20억 개 피의 담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유정개발	미상	2004년	<p>Britain's Aminex PLC 와 북한 당국은 원유산업 20년 협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짐.</p> <p>협정내용은 Aminex가 소규모의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하고 유정개발에 성공할 경우 생산되는 탄화수소에 대한 로열티를 북한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p>
---	------	----	-------	---

벨기에

1	다이아몬드 가공	미상	미상	<p>벨기에 안트워프 소재 인터젬스클래스(Inter Gems Claes)사와 북한 대송무역과 합작.</p> <p>동사는 다이아몬드 원석 가공회사. 북한과 벨기에와의 무역통계를 볼 때 벨기에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북한에 수출하고 가공된 원석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동 분야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p> <p>반면 벨기에와 북한간의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가 최근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볼 때 그동안 벨기에 투자회사가 철수했거나 투자자본금을 회수한 것으로 짐작됨.</p>
---	----------	----	----	--

네덜란드

1	금융	미상	1998년	<p>ING은행에서 나진선봉자유무역지역에 유럽국가중 최초로 지점 개설. (100% 단독투자)</p> <p>· 참고사항</p> <p>네덜란드 해외투자진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네덜란드은행(DNB ; Dutch National Bank)에 문의한 결과, 동 투자는 네덜란드 ING은행이 네덜란드 자금으로 직접 투자한 건이 아닌 한국의 ING은행지점</p>
---	----	----	-------	---

				에서 현지금융을 조달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네덜란드 해외 투자진출 금액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함 1999년 4월 ING 동북아시아은행 북한에서 철수
--	--	--	--	---

스위스

1	의약	2백만 유로	2004년	2004년 초 Interpacific Holding사는 북한의 평양 제약사 (Pyongyang Pharmaceutical Factory)와 공동으로 평스 제약 협력회사 (PyoungSu Pharma J.V. Co.Ltd)를 설립. 북한 측은 부지와 노동력을 제공했고, Interpacific은 기계 및 설비를 제공. Interpacific Holding (Interpharma Asia Pacific: 홈페이지: http://www.zuelligpharma.com/ip/ip_home.html)사는 자사인 Pharma Industries, PharmaLink와 Zuellig Pharma를 통해 아태지역 제약시장에 생산부터 마케팅, 운송, 유통, 판매망까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아태지역 제약시장에서 60년이 넘는 경험을 쌓아 온 회사로 평스 제약회사에 단순 기계, 설비 제공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까지도 제공하고 있음.
---	----	--------	-------	---

27) 중국의 對北투자 관련, 국내외 언론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 작성한 것임

28) 동아시아 무역연구회 내부자료 '북한투자현황-MOU' 참조, 현재 가동중인 합작기업과 설립년도가 등 명확한 투자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작성. 일본 재무성이 집계하는 '대내외 직접투자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재무성의 관리감독을 우려해 1억엔 이하로 분산 투자하는 경우가 다수임.

29) 195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600여명을 고용하고 있음, 르몽드 2005. 8. 3

IV. 북한의 외자유치 전망

□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 기업이 대북투자는 증가할 것

○ 외자유치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 지속될 전망

- 북한은 김위원장이 이번 방중 시, 경제특구에 대한 학습과 외자유치를 위한 활동의 전개가 상징하듯이 최근 몇 년간 전개하고 있는 외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외국기업의 대북투자는 중국이 주도할 것

- 북핵문제 등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은 결국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의 자본유입을 가져오고 있음.
- 서방 선진국들과 일본 등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북한의 중국에 편향된 외자유치 구도는 쉽사리 바뀌기 힘들 것으로 보임.

□ 국제정치 환경의 전환이 관건

○ 외국기업의 대북투자는 북한의 국가리스크와 반비례 관계

- 현재 외국의 잠재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미개척 시장인 북한을 새로운 투자처로 고려하고 있음. 이는 투자의 양대 고려요소(수익률, 리스크) 중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 그러나 외국 기업의 투자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투자 리스크의 감소가 전제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북핵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미국의 불량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되어야함.

-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함. 외국의 잠재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 투자가 보호 장치의 불비도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 북한이 안고 있는 많은 해외 채무도 북한의 신뢰도를 떨어뜨림³⁰⁾
- 국제정치 환경이 전환되고,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북한의 국가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도 대북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중국에 편향된 외자유치 구도의 극복은 국제정치 환경 개선에 달려있음.

□ 개성공단 개발의 성공이 북한의 외자유치 증가로 이어질 것

- 개성공단은 외국 잠재 투자자들의 Role Model
- 최근 미국을 방문한 바 있는 정동영 前 통일부 장관은 미국정부에 대해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미국기업의 대북 투자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대해 David Sampson 미 상무부 차관은 한국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기업들도 개성공단에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개성공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일부 미국계 기업들의 공식적 대북 투자도 향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도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 따라 투자에 큰 관심을 나타낼 일본기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0)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북한 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대해 총 77억불 가량 되는 채무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투자환경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고 여기고 있음. 모스크바 무역관 보고

- 개성공단 개발계획 3단계는 다국적 기업의 유치도 계획하고 있는바, 1,2단계의 남북간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외국의 잠재 투자가를 유인할 가능성이 클 것

V. 결론

-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둠.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이 나진선봉지대의 침체로 타격을 받은 후 다시 본격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선 2003년경부터 북한의 외자 유치는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자본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문제
 - 북한의 전체 외자유치액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는 제약 속에서도, 최근 북한에 진출하고 있는 자본의 대부분 중국 자본이라는 것은 대북사업 관계자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남.
 - 중국 자본 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이 북한 시장을 선점할 우려가 있음.

- 우리의 대응방안
 - 개성공단의 개발 지속
 - 현재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모델로서 점진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개성공단의 개발은 외국의 잠재투자자들이 북한 진출의 Role Model로 삼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의 성공으로 미국, 일본 등의 잠재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음
 - 외국기업의 단독 개성공단 입주가 어려울 경우, 한국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할 수도 있음³¹⁾

31) 주 북한 영국 대사관 개설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영국의 북한 전문가인 Mr. Jim Hoore와의 인터뷰 내용, 런던무역관, 2006. 2. 20

- 그렇다면, 현재 중국 자본에 치우친 북한의 외자유치 구도는 극복될 것임.
- 개성공단 외의 다른 지역,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여야 함
 - 현재 남측의 투자는 개성공단의 경공업 중심의 투자와 금강산 관광개발에 국한되어 있음.
 - 2005년까지 남북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자원은 흑연이 유일하였음.
 - 지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자본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밖의, 그리고 경공업 외의 분야에도 투자를 병행하여야 함.
 - 2006년 들어 정부와 기업들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나선 것은 바람직함.³²⁾
 -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북한광물자원 개발현황(2006년 2월)”에 따르면 남측정부가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아연, 인회석 등 광산개발에 나섰다으며, 포스코, 대주산업, 남해화학 등의 남측기업들도 북한산 광물 구매를 추진하고 있음.
 - 남측정부는 함경남도 단천시의 대홍 마그네사이트광산(추정 매장량 36억t)과 김덕 아연광산(추정매장량 3억t)을 남북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포스코는 북한의 최대 철광석 광산인 무산철광이 생산하는 철광석 10만t을 사기로 했으며, 대주산업은 북한산 시멘트용 석회석 100만t, 남해화학은 인회석 100만t 구매의사를 밝혀 북한과 협의중임.

32) “정부, 북 광산개발 나선다” 조선일보 2006.2.22

작 성 자

◆ 이상민 책임연구원(동북아팀)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6년 3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